

대권 재수 첫 발...계파 해소·4월 보선 '시험대'

문재인號 출범 의미와 과제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대선 재수' 행보를 다소 일찍 시작하게 됐다.

애초 무난할 것 같았던 대표되는 길은 박지원 의원의 치열한 추격전 속에 3%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당 대표의 리더십 행사에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제는=당 대표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차기 대선 도전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게 됐지만 그의 앞날은 가시밭길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당내 친노 진영에 대한 거부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비노 진영이 '친노 패권주의'라며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선다면 쉽게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문 대표가 자신이 공약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당직 인선과 공천을 하지 않으면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일각의 탈당 움직임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그는 친노가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통합 드라이브를 걸 것을 공언했으나, 사소한 실수 하나도 친노 계파주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문 대표는 당장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보궐선거를 완승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호'가 출범 초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보선이 치러지는 3곳이 원래 야당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과 옛 통합진보당의 도전으로 야권 표본선이 불가피해진 탓에 전승은커녕 2승1패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대선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자 최대 난제인 내년 총선 역시 계파갈등 해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계파주의 극복과 당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문 대표의 대선기도는 험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친노계 수장 골레 탈피 시급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 선언

대여관계 대립각 예고

대권에 도전하는 문 대표 개인으로는 친노계의 수장이라는 골레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신' 이미지를 털어내는 게 주요 과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한 것도 '노무현 2기' 정권에 대한 보수 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대표에 선출된 문재인 의원(왼쪽)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정기전국대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신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한길·안철수·정세균·박영선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을 통해 각 계파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자리잡기까지는 이들과 원만한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은=문 대표의 탄생으로 여야 관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을 관리하며 원만한 대어협상을 유도해 온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문신임대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시야에 넣고 '수권예비 정당'의 기틀을 다져나갈 태세여서 여당과의 대립각이 커지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피할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2월 임시국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문재인호'의 향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능자 구실을 할 전망이다. 문재인 지도부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개연성이 크다.

또 증세 문제의 경우도 문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청와대 경제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대표 취임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정국에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지원기자@kwangju.co.kr

최고위원 1위 당선 주승용 호남정치 새 비전 제시 주목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여수 을)이 8일 새정치연합 전국대의원대회(전대)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주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전대에서 16.29%의 득표율로 8명의 후보 가운데 1위로 당선돼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다.

주 최고위원은 경선 기간 동안, 호남의 대표 주자를 자처하며 특정 계파독점 구도 타파를 주장했다.

여기에 민생과 현장 정치를 강조하며 신뢰를 얻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최고위원이 친노 성향의 지도부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주 최고위원이 경제와 균형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일 경우, 호남의 차세대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최고위원은 고충 출신으로 광주이고, 성균관대학교 졸업하고 1991년 제4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도의원을 지낸 뒤 여천군수에 이어 1998년 민선초대 통합 여수시장에 당선됐으며 이후 전남 여수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선출돼 중앙정치로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주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장, 새정치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제의 당선자

오영식 최고, 전대협 출신... '젊은피' 대표주자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영식(48) 의원은 86그룹(60년대생,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상징성을 지닌 3선 의원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을 맡아 민주화 투쟁을 선도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우상호 의원과 함께 '젊은 피'로 영입돼 제도권 정치를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원내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위원장 등을 거쳐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한 전략통으로 꼽히며, 현재 서울 시장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 의원은 경선기간 중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젊은 '패기'를 가진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청년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계파 공세·룰 파동 불구 박빙 승부...박지원 '지고도 이긴 선거'

비노진영 구심점 역할 기대

"분열은 안돼" 분당론 일축

"지고도 이긴 선거다."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 당 안팎에선 나온 반응이다. 박지원 의원의 '당권 꿈'은 끝내 좌절됐지만 내용 면에선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인 것이다.

박 의원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이자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지원을 받은 문재인 대표와의 대결에서 3.52%포인트의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대 목전에서 불거진 룰 파동으로 약조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대의원에서는 밀렸지만 '당심'의 양측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문 대표를 누른 것은 박 의원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전 초반만 해도 당내에선 문 대표의 낙승을 점치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론'을 앞세워 기선제압에 나서는 등 특유의 개인기로 '대세론'을 무너뜨리면서 막판 판세는 대혼전으로 빠져들었다.

전대 코 앞에서 불거진 룰 파동 이후 동정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의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결집을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앞으로 당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노(비노무현)·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구심점을 자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주도세력 전면교체로 소외감이 극대화된 비노·비문 진영을 규합하며 당권파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노 진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에 대한 위기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 친노 진영과는 거리가 있는 당내 유력인사와 공조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내 파위를 기반으로 차기 대선국면에서 김메이커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 내외에서 거론되는 분당론과 관련, 박 의원이 "분열로 가면 안 된다"고 공언한 만큼 분당은 선택지가 아닐 것이라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승희 최고, 노동·여성 운동권 그룹 '맡으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재선의 유승희(55) 의원은 이번 당권경쟁에 나선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 당내에서는 강경파로 알려져 '여전사'로 통한다.

이화여대 재학 중 기독교학생운동을 하면서 노동현장에 투신한 뒤 노동권과 여성 신장에 앞장서는 여성 운동권 그룹의 '맡으니'.

1995년 광명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민주당 여성국장과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 당료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1번지인 종로를 지역구로 삼고 활동하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전략공천되면서 18대 총선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4년 뒤 서울 성북구에서 당선돼 당당히 국회로 재입성했다.

고(故) 김근태 전 의장의 계보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으로,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